

<< 경주 >> 선덕여왕의 발자취를 따라서

팀명 : 모란꽃 필 무렵

수원 ○○ 초등학교

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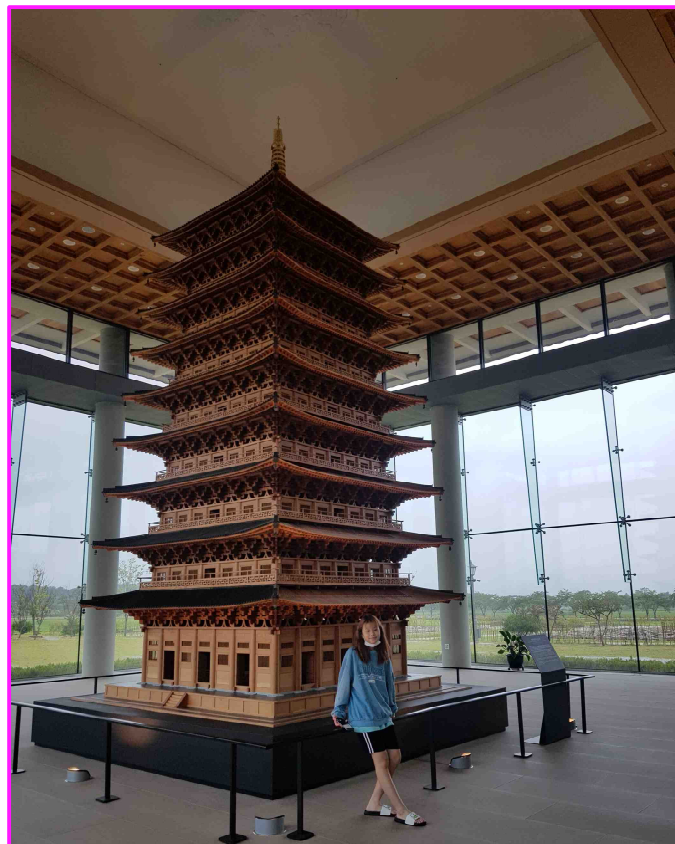
5학년 때 배운 교과서에는 “우리 역사에서 여성이 왕위에 올랐던 나라는 신라뿐이다. 선덕 여왕은 우리 역사에 등장하는 최초의 여왕이었다. 그녀는 김춘추, 김유신과 함께 고구려와 백제의 공격에 맞서 신라를 지켜 냈으며 여러 문화유산을 남겼다.” 라고 적혀 있다. 같은 여성으로써 삼국 통일의 기반을 이룬 리더십을 가진 선덕 여왕이 남긴 여러 문화유산을 직접 경주에 가서 눈으로 보고 싶었다. 때마침 역사 문화 환경 연구소에서 주최한 ‘꿈나무 답사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들과 함께 문화유산을 보러 간다니 감회가 새로웠다.

*** 분황사 모전 석탑 ***



분황사는 634년 선덕여왕이 경주에 세운 절이다. 분황사의 유래는, 당 태종이 선덕여왕에게 향기없는 모란꽃 그림을 주었는데, 이에 반박해 ‘향기로운 임금의 절’이란 이름의 분황사를 창건해 반박한 선덕여왕의 지혜로움을 엿볼 수 있었다. 분황사 모전 석탑은 신라 석탑 중 가장 오래된 석탑이라고 한다. 또 분황사 모전 석탑은 중국의 영향을 받아 돌을 벽돌 모양으로 깎아 정성을 들여 쌓아올린 것을 볼 수 있었다. 분황사 모전 석탑을 보고 나서, 돌을 벽돌모양으로 하나하나 크기와 모양을 잘 맞춘걸 보니 선덕여왕의 섬세함이 보였다. 분황사라는 절 또한 과연 여왕 시대에만 있을 수 있는 절 이름이라고 생각했다.

*** 황룡사 9층 목탑 ***



황룡사 9층 목탑은 고려시대 몽골침입에 의해 소실되어 현재 남아있지 않고 대신 그 자리에 황룡사터가 넓게 펼쳐져 있었다. 황룡사 9층 목탑의 축소

판이 있는 황룡사 역사 문화관에 갔다. 선덕여왕은 민심을 모으기 위해 불교를 일으켜 여러 사찰을 지었다. 그 중 선덕여왕은 자장법사의 부탁을 받아들이 다른 나라의 침입을 불교의 힘으로 막기 위해 황룡사 9층 목탑을 지었다. 결국엔, 고구려, 백제를 멸망시키며 신라를 중심으로 통일을 하고, 신라를 넘본 당나라를 몰아내기까지 했으니, 9층탑의 효과를 본 셈이지만, 아쉽게도 황룡사 9층 목탑은 몽골에 침입 때 불타 없어져서 황룡사 역사문화관에서 1/10배로 축소해 재현해 놓은 것을 봤는데 그 또한 엄청난 높이에 깜짝 놀랐다. 실제 황룡사 9층 목탑의 크기는 아파트 20층 높이라고 한다. 이 웅장함에 선덕여왕의 배포가 컸음을 알 수 있었고, 여왕으로써 자신의 나라를 지키려는 의지가 강하게 표현된 것 같았다.

*** 첨성대 ***



첨성대는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천문대로 한반도 고대 건축물 중 유일하게 후대의 재건이나 복원 없이 그 원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이 특징

이다. 여기에는 천문을 관측하여 하늘의 뜻이 여왕인 자신에게 있음을 밝힌 선덕여왕의 의지가 담겨져 있다. 첨성대는 단순히 천문 관측대로서 과학적 기구의 역할만 했을까? 선덕여왕 시대 상황에서 첨성대가 종교적인 역할을 했을 수도, 정치적인 이유로 만든 것일 수도 있을 것 같다. 첨성대는 돌에 개수, 층 마다 여러 가지 상징을 가지고 있다. 별을 관찰하면서 농사를 짓는데 가장 중요한 날씨를 알 수 있어 민심을 살 수 있고, 별자리 움직임으로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견할 수 있는 예지력을 발휘함으로써 백성들이 선덕여왕을 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은 아니었을까?

*** 선덕여왕릉 ***



선덕 여왕은 자신의 죽는 날을 예언했고 도리천(낭산의 동남쪽)에 묻어달라고 했다. 불경에 사천왕천 위에 도리천이 있다고 했으니 10년 뒤 문무왕이 사천왕사를 선덕여왕릉의 아래쪽에 세웠다고 하니 선덕여왕의 예언이 정확했음을 알 수 있었다고 한다. 또 능을 둘러싼 소나무들은 무덤 쪽으로 해바라기하듯 몸을 돌려 서 있는데, 그 소나무들이 무덤을 지키는 호위병처럼 느껴졌다. 선덕여왕릉에 도착했을 때 정말 다른 세상에 온 듯 아무 소음도 없이 맑은 새소리가 들려서 마음이 편안하고 평온해지는 느낌을 받았다. 선덕여왕님께 작별 인사 드리고 내려오면서 지혜롭고 현명한 선덕여왕을 닮고 싶은

생각을 하였다.

그 당시 최초의 여왕으로 모진 수난을 겪으면서도 곳곳이 민심을 수습하고 큰 포부를 가지며 덕을 베풀어 삼국통일의 기반을 다진 선덕여왕!!!! 이번 답사를 통하여 경주에 있는 선덕여왕이 이룬 업적을 경험하면서 같은 여성으로써 선덕여왕의 카리스마 있는 리더쉽은 여성 리더로써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점임을 크게 느끼고 돌아왔다.